시행일자	2026. 11. 19.	매 수	총 4매
전 화	031-316-0420	팩 스	031-601-6376
담 당 자	사무국장 김선화		
주 소	경기도 시흥시 신천로 100, B동 208-2호		

보 도 자 료

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 예산 복원 및 장애인야학 설치·운영 지원 촉구 기자회견 개최

장애인 자립생활 외면하는 시흥시 규탄!
줬다 뺏는 예산으로 장애인의 권리도 물 건너간다!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두리센터)는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권리증진을 위한 활동을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을 이념적, 실천적으로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설립된 시흥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3. 두리센터(센터장 윤영실)는 오는 11월 19일(목) 오전 10시 30분 시흥시청 앞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외면하는 시흥시 규탄 및 장애인야학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이번 기자회견은 시흥시가 2026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예산을 2027년 예산안에서 일몰 삭감한 데 대한

규탄과 함께, 수년째 요구해 온 장애인야학 설치 및 운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5.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이 시설과 가족의 보호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 기술훈련, 권익옹호, 동료상담, 지역사회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기관입니다. 그러나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공간조차 자체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6. 두리센터를 비롯한 시흥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은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을 위해 약 4년간 지속적으로 시흥시에 지원을 요구해 왔고 그 결과 2026년에 이르러서야 시흥시 자체 예산으로 관내 3개 자립생활센터에 각각 연간 1천만 원씩, 총 3천만 원의 지원이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7. 하지만 이마저도 1년 만에 사라질 상황에 놓였습니다. 시흥시는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이유로 2027년 해당 예산을 일몰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 4년을 요구해서 겨우 확보한 예산이 단 1년 만에 사라지는 현실은 시흥시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얼마나 불안정한 정책으로 취급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9.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일시적인 시혜나 재정 여건에 따라 유지하고 중단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10. 장애인 평생교육 문제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장애인에게 교육은 단순히 여가를 보내거나 취미를 배우는 활동이 아

니라 오랜 시간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되어 온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배울 권리를 회복하고, 자신의 삶을 이해하며, 타인과 관계 맺고,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11. 두리센터는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배우고 소통하며 권리옹호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야학 설치를 수년째 요구해 왔습니다. 시흥시의회와 시흥시 관계부서 등을 만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책적 지원을 요청해 왔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설치 계획과 안정적인 운영 지원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12. 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조성하고 일회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만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권리를 배우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인 장애인 야학에 대한 별도의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3. 시흥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평생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은 반복하면서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결국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또 다른 기다림과 실망만 안겨줄 뿐입니다.

14. 장애인의 권리는 예산이 남으면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가 아닙니다.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삭감하고 미뤄도 되는 권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15. 이에 두리센터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시흥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시흥시는 2027년 삭감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을 즉각 복원하라!
하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

인 자체 예산을 확보하라!
하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을 생색내기 사업이 아닌 권리 보장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라!
하나. 수년째 미뤄온 장애인야학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시설・인건비・운영비 지원예산을 마련하라!
하나.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정책 협의구조를 마련하고 예산 편성과정에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16.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배우고 성장할 권리는 행정의 선의나 예산의 여유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흥시는 더 이상 검토하겠다는 말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17.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말하려면 자립생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말하려면 장애인 야학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예산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말로만 약속하는 장애인 정책은 필요 없습니다.

18. 이번 기자회견 후 임병택 시흥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우리는 시흥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라도 기다리려고 합니다. 시흥시가 장애인의 권리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구체적인 정책 논의와 예산 지원 등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귀 언론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